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음·필·름

연세대학교 제 17대 총학생회

fenenergyup@yonsei.ac.kr

www.yonsei.ac.kr/~ysfem



2005. 4호
9월 8일 발행

그녀,
틈 사이로 바람을 부는

기획 |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재교육 | 특집 | 여성주의자에 대한 그녀들의 생각 |
여성주의의 역사가 여성주의자로서 성취의 과정과 마주하기 | 여성학 수업 강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다



2005.04

CONTENTS

02 기획 |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여는 글 • 02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새터 反성폭력 내규 개정안) • 04

학내 反성폭력 운동과 자치규약의 의미 • 07

대학 내 공동체 문화에 대하여 • 10

공동체 내 언어성폭력, 그 일상성을 살펴보다 • 15

17 특집 | 여성주의자에 대한 그녀들의 생각

오산 글·17

여성주의자와 여성주의 활동가

*총여실 반대 3년차*와 *여성주의 활동가* 사이에서 • 18

그녀들의 수다 - 여성주의자에 대한 오해와 이해 • 23

여성운동 모두 할 수 있다는 희망 • 28

31 광고1 제 8회 여성제

32 여성주의 덕보기 여성주의자로서 성폭력과 마주하기

35 광고2 그녀들의 외발된 수업 만들기

김익실 교수 언어 성물력 자료집 출간

36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늘, 맘대로 외작외작 미디어 씹기

38 여성학 서평 삶의 시간에 대해 생각한다

- 우에노 치즈코 나키무라 유지로 『인간을 넘어서』

* 이번 호, 고동의 '어느 여성주의자의 좌충우돌 서바이벌 가이드'는 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빠지게 되었습니다.

* 지폐의 '여성주의 만화읽기'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 이같은 '즐거운 여자들의 산책'은 필자의 개인사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새터 反성폭력 내규(이하 새터 내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학 문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성차별/성폭력적인 상황을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가기 위해 2000년 2월 9일, 학생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많은 술자리가 마련되고 '친해지기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성폭력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OT/새터 기간에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실제로 새터 내규는 많은 학생들에게 성폭력의 개념을 설명해주었고 '폭력적인 일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내규는 자치 규약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질 수 없고 이에 따라 실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는 反성폭력 화칙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문제제기는 내규의 힘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너무나 일상적이지만 분명히 내규에서 '성폭력'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화산을 가질 수 있었다).

새터 내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너무나 일상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시각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일상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지적하는 걸 귀찮아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것은 공동체 문화에서 상당히 이기적이고 물상식한 행위이다. 내규는 결코 '콜라 먹지 말고 사이다 먹어'와 같은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적어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성별 권력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학 공동체에서 기득권은 이성애자 남성들이 쥐고 있다. 그들은 '우린 콜라를 좋아할 뿐이야'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그 콜라가 단순한 콜라가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적용하지 못

하는/않으려는' 사람들을 죽이는 콜라라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까지 콜라를 마시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시기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처럼 일상적인 것을 지적하며 보다 평등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새터 내규였으나, 한계성도 가지고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내규에 명시된 여러 구체적인 예는 많은 맥락이 삭제된 채 '행위상'만 남았다. 기존 내규에서 예로 제시된, 여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언행인 "야, 여자 후배들 좀 사이사이에 앉혀봐" 같은 경우 이 말에 담긴 함의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언행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금지 조항'식으로, 또, OT/새터는 대학 문화의 일면일 뿐이고 술자리는 학교 다니는 내내 일상적으로 마련되며 성폭력적인 언행 또한 평소 비밀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규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궁극적으로, 남성중심적인 대학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바로 남성중심적 문화가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

의 가부장성과 성별 권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상에 스며있는 이성애중심주의와 학번권력, 나이권력 등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또 다른 부당한 권력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자치규약 개정안은 OT/새터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동제, 현장활동, 연고제 등 모든 과/반/동아리의 활동과 생활 환경 안에서 적용된다. 보다 효율적이고 폭 넓은 문제제기를 위해 술자리/놀이자리 등 애매했던 카테고리들을 없앴다. 실제 있었던 일이나 구체적인 언행을 사례로 제시하는 대신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나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등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상황들을 짚어 냈다. 아울러 이성애중심주의와 나이/학번권력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실천 조항을 제시했다. 또한 자치규약 개정안에서는 문제 제기의 범위가 대학 내의 전반적인 가부장적 문화로 넓어졌기 때문에 성평등 자치규약이라고 명명했다. 기존의 反성폭력 운동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섬세하게 反성폭력에 대한 담론을 풀어내려고 노력했다. 자치규약 개정안을 통해 학내 공간의 모든 성폭력과 성별 권력관계가 사라져서 보다 평화롭고 즐거운 대학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새터 反성폭력 내규 개정안)

기획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1 목적

대학 사회는 기존의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별 권력관계, 이성애중심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이는 대학 공동체에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해내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이런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찰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이는 새터, 대동제, 현장활동, 연고제 등 과/반/동아리의 활동과 생활 반경 안에서 수많은 성폭력을 양산해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기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성폭력이다. 따라서 본 자치규약은 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두었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해결

2-1. 성폭력의 개념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

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적인 폭력 (Sexual Violence)으로 알려진 성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폭력 뿐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의 조성, 특정 성의 취약한 부분을 노린 폭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중심적인 일상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맞닿아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은 사건 발생 시의 상황과 개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 그리고 사건 해결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지적하는 성차별이나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성적 언행이나 성차별 유발 등으로 노동권, 교육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루는 성희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칭은 성폭력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각이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을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본다면 아래와 같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언어 및 행위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 놀이 자리에서 특정 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것
예)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구에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기획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언어 및 행위

예) 여성의 옷차림이나 늦은 귀가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경우

- 특정 성의 공간을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예) 다른 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 표현

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행위 묘사,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한 성적 농담 및 욕설,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예)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성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특정 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 앉아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언행

예)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표현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예) FM 및 각종 게임의 예로틱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고 성적으로 대 상화해서 심사하는 경우

●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보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2-2.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 중심주의란 모든 사람은 이성애자이며 반드시 이성애 자여야 한다는 독단 아래 오직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것, 올바른 것이라 여기는 가부장적 통념이다. 이성애 중심적 폭력은 이성애 외의 경향이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비난하고 주변화 시킴으로써 성적 다양성을 억압한다. 또한 이성애 중심주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특정 성 역할을 강요하면서 남성 우월의 성별 권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단일한 성 정체성을 강요할 수 없으며 특정 성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성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매우 다양하며, 비이성애자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여성과 남성의 틀에 갇히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개개인 모두가 이러한 성적 다양성 속에 있다. 우리는 당연시되어 왔던 이성애 중심적 풍토를 낫게 보는 연습과 기존의 이성애 중심적 언행들을 성찰을 통해 보다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동성애 혐오증에 기반하여 욕설 및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성애 중심적 커룰 문

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 비이성적자의 성적 지향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2-3. 학번권력과 나이권력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서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번 및 나이 권력, 성별 권력을 통해 성폭력적인 놀이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학번 권력 및 나이 권력은 공동체 내부의 수평적인 관계 맺음은 물론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번 및 나이와 무관하게 본 자치규약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 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제기된 경우 학번이나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이에 폭력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4 적용 대상

본 자치규약은 학내의 과/반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 동문회 등 모든 자치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5 의무

- 학내 모든 공동체에서는 각종 행사 및 모임 자리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새터, 현장활동, 대동제 등 학내 공동체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

회는 성폭력 사건 해결 주제 교양을 이수해야 하고,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사건 접수 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치규약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제작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현장활동과 대동제 기간 2주전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자치규약을 소속 단위의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6 사건의 처리

- 학내에서 일어난 모든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反성폭력 학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식적 처리나 비공식적 처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에도 각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는 성폭력 상담실과 총학생회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7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 정 : 2000. 2. 9

1차 개정 : 2003. 1. 28

2차 개정 :

학내 反성폭력 운동과 자치규약의 의미

反성폭력 자치규약의 시작 및 의의

9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온 자치규약 운동은 몇 년에 걸쳐 대학 내 反성폭력 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왔다. 초기의 자치규약 제정 운동은 학생자치권을 주장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공동체 내의 질서를 고민하고 세워나가는 과정을 갖는다는 의미 아래 진행된 것이었다. 따라서 성폭력 자치규약은, 공동체 내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성폭력 문제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새터反성폭력내규는 새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도움으로써 성폭력 문제를 공동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해결해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¹⁾

광역학부제로 인한 학내 공동체의 성격 변화로 인해 '학생자치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줄어든 이후에도, 反성폭력 자치규약이나 새터내규는 새터 및 과/반 모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²⁾ 또한 새터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反성폭력' 교양을 받아야한다는 약속은, 그리 실효성 있게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학생회 단위를 통한 反성폭력 운동이 계속될 수 있게 해 주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에 대해서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예방교육을 받아야한다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수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에 대한 일상적인 통념,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생각들은 이미 남성의 경험의 틀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에 대한 의무 조항이 포함된 새터내규는 학내 공동체 역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아직은 어렵지만 한 학내 성폭력 예방

새터내규의 제정, 개정을 통과시킨 확대운영위원회가 학내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새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내규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남곤 했다. 성폭력 사건이 연세대 안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성폭력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했던 사례들은 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몇몇 새터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미 성별화 되어있는 성에 대한 관념과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의 맥락을 일일이 조항으로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탓에, 내규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해야할 행동의 목록의 의미만을 갖는 경우도 많았다. 사실 자치규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성별화된 색슈얼리티에

1) (연세에는 '새터 反성폭력내규'가 있다(구) 그제 1997) 2000년 연세후면 새터 자료집

2)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공동체 Beyond가 발간한 두 개의 자치규약 자료집은, 개념과 술어(시)에 있어서 여성적 이중기준, 성적응답, 휴면 문제 등 공동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폭력적 문화를 매우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있으며, 2000년에 제정된 새터내규 역시 성폭력 관련 조항마다 연대에서 발생한 몇 가지의 예를 함께 실어놓았다.

기획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대한 여성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 결과 공동체가 내부의 성폭력 문제를 끌어안고 내규를 기반으로 논의를 확장하기 보다는, 여운단위와 여성주체들이 '이 정도는 정말 명백하게 성폭력이지 제발 삼가라'고 호소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짚어주는 내규는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 때문에 그 의도와 달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도 성폭력이나'는 등 성폭력에 대한 행위 중심적인 반박과 희화화에 부딪히게 되었다. 연성부연³⁾, 여언자연⁴⁾ 등 학내 공동체들의 연대모임이 내규 전문이 쓰인 포스터를 제작하고, 자료집을 통해 학내 反성폭력 운동 과정의 고민을 소개하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비판해왔으나,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엔 충분치 않았다. 모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의 편견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성(Gender)에 대한 이해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닌 내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에 그치곤 했다.

이렇듯 학내 공동체에서 성폭력 예방과 사건 지원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새터내규의 적용기간이 OT부터 새터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反성폭력 교양을 버젓이 OT 프로그램에서 빼놓는 단대조차 있으며, 마련한다 하더라도 학내 성폭력 상담실이나 새터내규 관련 모임에서 짜놓은 내용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대별로 구성원의 성비나 놀이문화에 따라 다른 내용들이 전달되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

을 준비하는 단위는 거의 없다. 또한 새터에서 反성폭력 교양을 할 때도 첫 날 저녁 프로그램에서 교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새터 장소로 가는 동안이나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조이름과 구호 등을 정할 때의 성폭력은 여전히 예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그저 '고민이 부족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심란할 뿐이다.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학생단위의 과제

예전보다 성폭력 사건 횟수가 줄었다는 말을 꽤 듣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새터내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도 간혹 들린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알려지지 않고, 잘 '해결'된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성폭력상담실을 통해 처리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학생 단위가 갖는 책임이 더욱 소홀해지는 느낌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하여 정황을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하는 것만이 아닌, 공동체 내부의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여전히 학생 단위의 몫이다. 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공동체가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이 처리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등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지원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건 지원이 제대로 되었든 되지 않았든 간에 접수된 신고 사례들을 이후의 사건 예방을 위해 공개하거나 다른 사건 지원을 위한 자료로 남길 의무 역시 잘 이행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혹시나 우리 단대 새터에서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더 커져버린 것이다. 물론 그 조바심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막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단대' 일이나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폐쇄적인 공동체 의식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피해자의 주체적인 치유를 돕고 공동체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가는 '사건 해결'의 과정을 향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관계맺기의 전제가 되는
反성폭력

98년 몇몇 단대의 자치규약에 이어 2000년에 재정된 새터내규도 어느새 2차 개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각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드러나는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학내 공동체 스스로의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고민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내용의 자치규약도 그저 여성 문

제에 관심을 가진 몇몇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거나 자주 발생하는 몇몇 성폭력 행위들을 단순히 금지하는 데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이제 새터에서, 과방에서, 대동제에서, 강의실에서, 서로가 살아온 과정을 이해하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같은 대학에 소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로 묶이는 것이 가져오는 어려움에 대해 섬세하게 살펴보자. 관제맺기를 위한 약속으로써의 '反성폭력'이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反성폭력 자치규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관계에서든지 필요한 약속들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공동체로 함께 살기'를 주장한다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몸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당연히 서로의 경험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反성폭력'은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고 여성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들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채로 학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제 학내 反성폭력 운동은 자치규약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이루어나감과 동시에, 反성폭력 운동의 고민 지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자치규약이 담고 있는 고민을 시작으로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학내 공동체를 기대해 본다.

3.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출임결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각 단대 여성주체들과 총학생회가 함께 학내 反성폭력 운동을 고안했던 연대 모임.

4.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출임결과, 단대학생회 연대체인 연성부연에서 과반, 동아리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한 모임으로 2005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대학내 공동체 문화에 대하여

기획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관계 맺기〉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서로 다른 사람과 각기 다른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삶을 형성해 나간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에게도 관계란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반, 동아리, 학회 등의 외부 사회와는 조금 다른 긴밀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에서 접하게 되는 관계 맺기의 방식은 남성중심적인 관계, 이성애 중심적 관계, 나이권력·학번권력에 따른 관계 등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폭력적, 수직적으로 만들게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

새터 내규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공동체 내부 안에서 각자가 맺게 되는 관계의 모습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그 안에 존재하는 관계의 폭력적 요소들을 탐지해 보다 비폭력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강요된 적극적 드러내기와 유머

- 어느 신입생의 새터

"오늘은 새터 첫째 날이다. 선배들 친구들에게 어떤 첫인상을 남겨야할지 걱정이 된다. 오리엔테이션 때 FM을 잘 하던 친구

의 이름은 벌써 모든 사람이 외우고 있다. 나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싶다. 하지만 난 목소리도 크지 않고 개인기도 없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 두렵다. 친구들을 쉽게 사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대학에 오면 마냥 즐거울 줄 알았는데 첫 만남부터 부담이 된다."

매년 2월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과 새터를 통해 선배, 동기 등 대학 안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첫 만남을 하며 이것을 시작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첫 만남에서 신입생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드러내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드러내기'의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입생들이 자신을 드러낼 때는 적극성을 강요받는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큰소리로 말해야 자신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생각과 암묵적으로 강요된 분위기 속에서 군대의 관동성명과 같은 FM과 이목을 끌기 위한 개인기를 요구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적극성을 권장하는 분위기 안에서 신입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개를 받는 상대방과의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삶의 일부분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나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자기소개의 역할이라고 하면 적극성이라는 말이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자기소개 문화의 실상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적극성'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의 자기소개는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는 상대방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 나 스스로를 '유용한 가습거리'로 만드는 - 행위가 된다.

또한 자기소개가 진행되는 과정은 선택적 배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신입생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나 몸매에 대한 평가를 받고 목소리, 말투 등 '보여지는' 것들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화된 고정관념에 의해 분석된다. 사회적으로 일컬어지는 잘생긴 또는 예쁜 얼굴,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 세련된 말투, 날씬한 몸매 등의 것들은 그 사람이 자신있게 자신을 내비출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 되고, 이러한 자원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희화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심어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련의 자기소개 과정을 거치면서 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진솔함과 별개인 자원의 획득 유무를 기준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첫인상은 관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신입생들이 신고식 형태로 강요받는 개인기의 대부분은 성적인 농담이나 유행 따라하기 등이 되는데 목소리가 작은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머코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때의 유머는 대부분 소위 말해지는 남성적임(정력(?)적임, 야한, 과격함) 또는 여성적임을 소재로 한 유머와 호모토피아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유머 등이 중심을 이룬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성적, 여성적 자원들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개인기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입생들은 성별화된 역할의 구분이 명확한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한 여성스러움이라는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의 경우 명예남성화 되는 것을 통해 유머코드에 부합하기를 요구받기도 한다.("누구누구가 여자냐? 남자지 하하하~"). 비이성애의 성정체성이 유머의 코드로 자리매김한 공간에서 비이성애자는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관계맺음을 한 구성원들은 공동체가 이성애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고히 하게 된다.

이렇듯 자기소개와 '쇼'로 이루어진 개인기속의 유머의 모습은 정형화된 성차별적 고정 관념에 있다. 결국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떤 면에서 자원이 부족한' 서로를 배제하는 문화에 익숙해지며, 권력화 된 - 동등하지 못한 - 관계를 맺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

(2) 놀이 문화를 통한 관계 맺음

오리엔테이션기간동안 공동체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은 술을 마시면서 이루어지는 놀이를 통해 채워지게 된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놀이를 통해 편하게 서로를 알아가게 해준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놀이들이 선배로부터 후배로 대물림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술자리 문화/ 놀이문화를 통해서도 관계형성의 많은 부분이 녹아들어가게 된다.

게임의 대부분은 술을 먹이기 위한 행위로서 진행된다. 배스킨라빈스31, 더게임오브데스 등등 게임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술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방

기획 대학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식으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본연의 관계맺음의 중요한 과정은 빠진 채, '술에 취하는 것'을 통해서만 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술에 취하는 행위에도 성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흔히 뺨했다고 표현되는 상태가 되면 남성은 '잘 논다, 적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여성은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다' 등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자리로 구성되는 관계의 친밀함의 상당한 부분에서 여성들은 제외되기 십상이다.

서로를 알아간다는 명목하에 받아들여지는 게임 중 대표적인 것이 '진실게임'이다. 일정 확률로 지적당해 각자의 삶의 경험을 말하게 되는 이 게임 안에서 실상은 대부분 '성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각자의 경험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며,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개인의 성경험을 가습 거리로써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의 성적 경험이 가습 거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성별 분화를 볼 수 있는데 남성의 성적 경험은 소위 '남성성'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여성의 성적 경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순결이데올로기' 안에서 여성에 대한 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언어 성폭력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게임을 통해 친해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배제하게 된다.)

또한 상당수의 게임들이 여/남간의 신체 접촉을 매개로 하여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게임들은 성폭력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공동체 이탈을 일으키기도

한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폭력성을 없애기 위해 진솔한 대화를 유도하는 게임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3) 관계속의 권력

주로 '몇 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에서 왔구요, 몇 살입니다.(또는 재수여부나 조졸여부를 확인)' 등으로 자신의 출신 지역과 나이, 학번을 통해 자신을 소개한다. 이는 관계의 형성이 지연, 학연, 혈연, 나이 등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형성의 첫걸음이 자신 스스로의 삶의 경험이 아닌 뒷배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맺음의 빈약함을 드러낸다.

출신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종종 '청담동에서 왔구요', '강남 살구요' 등의 소개가 이루어진다. 마치 모든 사람이 서울의 구·동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것은 '서울연고 중심성'의 결과이다. 또한 지역별 소득 격차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실상에서 출신지 중심의 자기소개는 소득격차를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관계형성에서 나이를 매우 중요시하는 풍조는 만연하다. 매년 불거지는 조기졸업한 고학번과 재수한 저학번사이의 호칭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문화가 낳은 결과이다. 나이를 통해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를 호칭으로써 견고히 하는 행위들은 관계맺음을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만

드는 작용을 한다.

관계맺음에 있어서의 권력 차이는 이론만이 아니다. 성별적으로도 다른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선배'라는 호칭에서는 동등하지만 '누나'와 '오빠'라는 호칭에서는 성별적으로 다른 위계관계가 형성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공동체 내부에서 은연중에 정해진 성역할의 구분이라는 성차별적 상황 속에서 여자선배는 뒤에서 보살핌노동을 하는 존재, 남자선배는 앞에서 이끄는 존재로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학번 여자 선배들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현 대학 공동체의 현실에서 여자 후배들은 볼 모델을 찾기 힘들어지며, 새터를 통해 남자 선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반문화에 익숙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자후배에게 여자선배는 쉬운 대상이 되고 여자후배에게 남자선배가 어려운 대상이 되게끔 하는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권력관계의 형성은 공동체 내의 남성 중심성을 견고히 하는 결과를 낳는다.

(4) 공간을 통해본 관계

새터를 준비할 때 반드시 여/남의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각 단위마다 4개 정도의 방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공간의 활용이 충분히 보장될 때도 방의 구분은 '술먹는 방', '조용히 이야기하는 방', '자는 방'으로 성별 구분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새터에서의 관계 형성 방법 중의 하나가 밀집된 공간에서의 집단생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 공간에 모두같이'라는 집단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

게 나타난 결과이다. 하지만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의미를 공동체에 투영할 때 생기는 것이지 생활범위를 강제함으로써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두 한 공간에서'라는 의식은 오히려 개개인의 성적 정체성 안에서 공간이 갖는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다. 여/남의 공간분리의 원칙은 '여/남이 분리되고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분리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 요구를 보장해 주기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생리중인 여학우가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남학우의 경우 그러한 경험을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의 생리현상이 '말해서는 안될 것'이 되는 분위기 안에서 미리 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생리중'임을 밝히고 공간분리를 요구하기 힘들다. 결국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간 분리를 보장받아야함에도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공간 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대부분 공동체 내부에서의 고민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새터 내규가 회화화되기 쉬운 상황, 단위별로 내규교양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간분리를 비롯한 실제적 사항들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특히 단위 내에서 많은 경험적 자원을 가진 선배들의 고민이 부족할 때 - 또는 물이 해를 가지고 있을 때 - 내규의 내용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새터 등의 단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의 교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단순

기획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히 내규 훑어보기 식이 아니라 내규의 각 사항에 대해서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숙지하고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내부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재합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 내부의 행동의 원칙이 세워지는 경험은 그것으로도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지시로 인한 합의'를 뛰어넘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5) 올바른 관계형성의 방법 모색

우리가 형성해야 하는 관계는 각자의 '성별, 소득수준, 출신지, 외모' 등의 '자원'으로부터가 아닌 '살에 대한 진지한 드러내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대 다수의 위축되기 쉬운 상황속에서 '쇼'식으로 이루어지는 자기소개가 아닌 일대일의 대화가 상대방을 바꾸어가며 이루어지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첫 만남의 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새터 게임에 있어서도 가학적 상황의 연출을 통해 진행되는 게임의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 완성된 대안의 형태는 앞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인생 곡선그리기 게임' 등의 예나 일부 반들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들의 예를 보듯이 충분한 내부고민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도 성별 권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내부합의를 통해 만들어도 구성원간에 성인지적 고민이 싹트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

릴 수 없을뿐더러 또 다른 성폭력을 유발하는 게임이 되기 쉽다. 예를 들어 '인생 곡선그리기'에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성경험으로 두고 성적유회를 위해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회가 새터나 오리엔테이션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년 해오는 학생회 행사를 위해 반 공동체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초적 환경을 재확인하는 안 된다.

새터에서 좀더 편안하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터 준비과정에 있어서 각 단위내에서 '개인간의 권력 차이(특히 성별 권력 차이)'에 따른 폭력적 상황'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오리엔테이션때의 '불편함'이 새터 불참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첫 만남인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강요하는 등)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는 2박3일간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새터에 참가하고 싶지 않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온 새터의 모습이 상당수 참가자들에게 '불편한' 공간이 되어왔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대학생활의 첫 시작을 개인에게 '불편함, 폭력적임'이 아닌 '즐거움'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공동체 내부에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발전적 관계 형성을 모색해볼 때이다.

by. 범 천문우주학과 03

공동체 내 언어성폭력 그 일상성을 살펴보다

기획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지난 2월, 새내기들을 처음 맞이하는 OT/ 새터에서 반성폭력 내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선 적이 있다. 처음 무대에 올라왔을 때, 대학에 처음 들어와 들뜬 마음에서인지 새내기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의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설명이 시작되었다. "성폭력은 동의할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는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로 이야기를 꺼냈고 새내기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고등학교 때 성교육이나 일반 사회 과목 등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니 어쩌면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그쳤으리라. 그러나 개념 설명 이후 여러 가지 성폭력에 관한 사례를 들자, 새내기들은 점점 의심과 반문이 섞인 심각한 표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에서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 할 때는 여러 가지 혼란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처럼 언어 성폭력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반발은 엄청났다. 이렇게 딱딱한 강연 자리가 아니라, 평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성폭력적인 언사라고 느꼈을 때 반문을 하면 더더욱 상대방의 반발은 커진다. 그 엄청나고 수많은 반발의 이유들을 살펴보자면 대개 사람들이 언어가 가지는 비가시성, 일상성 때문에 언어 성폭력을 상대적으로 '가벼운 폭력'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어성폭력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사람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미지는 대개 강간, 성추행 등의 신체적 폭력에만 머물러 있다. 따라서 언어성폭력은 물리적 성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낮게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몇몇 학우가 과방에 들어오면서 방금까지 했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 중 A라는 학생이 소위 '아이템'을 뺏겼다는 의미로 "야, 나 강간당했었다니깐."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당신은 이 표현이 성폭력으로서 얼마만큼의 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학우가 단순히 "강탈"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강간"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폭력 -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성별권력을 전제로 행사하는 성폭력이다 - 의 의미에서 강간하는 사람과 강간당하는 사람간의 성별권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구성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회색시킬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폭력의 가장 직접적 표현에서 느껴지는 성적 불쾌감은 그 발언의 이면에 담겨진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더불어 불쾌감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상황이 차곡차곡 겹쳐지면 정신적 충격의 무게는 더더욱 가중되게 마련이며, 이는 물리적 성폭력에 버금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성폭력은 말로 표현되는, 가장 일상적인 형태의 성폭력이다. 가장 일상적이기에 개개의 언어 성폭력은 그 무게감이 줄어들어,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그냥 항상 일어나는 일이니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는 수준에 그치

고 한다. 그러나 이 '그러려니'는 여성이 일상에서 느꼈던 수많은 경험들을 배제/ 은폐시켰던 일들이고, 따라서 지금껏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 박힌 폭력성을 끊임없이 양산시킨 근본이다. 위의 예에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A의 발언은 A의 의식에 은근히 존재하는 가부장성, 남성중심적 사고관, 여성 억압적 사고관을 습관적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사고는 끊임없이 또 다른 언어 성폭력을 낳게 된다. 언어 성폭력은 무한히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폭력이기에 더욱 중대한 일이다.

특히나 공동체 내 언어 성폭력에는 성폭력이 전제하는 성별 권력 관계에 나이 권력, 학년 권력이 가중되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된다. 위의 A라는 학생이 학번과 나이로 선배이자, 남학생이고, A의 얘기를 들던 학생들은 후배들이라고 설정해보자. A의 후배들이 A의 발언으로 인해 성폭력적 불쾌감을 느꼈을 때 그들은 그 불쾌감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특히 여자 후배라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을 때 예민한 사람,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상황에서, 특히나 선배에 대한 무례를 무릅쓰고서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이 느낀 불쾌감과 성폭력에 대한 지적은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런 암묵적 허용은 점점 더 심각한 언어 성폭력을 허용, 심지어 이 발언을 단지 유머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후배의 경우, 선배의 경험과 언어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 가끔 반성폭력 대구가 공동체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반학생회나 동아리의 경우

고학년 선배들이 성폭력적인 발언들을 할 때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볼 때면 한번권력, 나이권력이 얼마나 성폭력 문제와 연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굳이 공격적인 성폭력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매순간 남성중심적, 이성애 중심적 시선이 담긴 발언들은 여성과 비이성애자들의 경험과 언어를 끊임없이 규제시키고 배제시켜왔다. 대화 중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성적인 욕설들, 게임, 축구, 군대 등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이야기들로만 대화가 채워지는 과방, 미팅에 나갔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외모로만 평가했던 술한 딸들, 이성연애만을 권하는 빈곤한 상상력, 이런 것들 속에서 여하우들과 비이성애자들은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다.

언어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해 놓았고, 문제제기 또한 수없이 나왔다. 그러나 반성폭력 내규를 개정하려는 이 시점에서 언어 성폭력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이기때 그렇다. 언어 성폭력은 바로 언어로써 해결할 수 있다. 성적 괴롭힘을 느꼈을 때 적극적으로 성폭력적 지점을 짚어내며 항의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 묻혀있던 수없이 많은 사례를 고집어내야만, 경험을 이야기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한 다른 성의 경험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가부장성을 깨뜨리려는 태도, 이것이 언어 성폭력 뿐 아니라 모든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tv 최예진 정보산업고등학교 08

by 최예경 정보산업공학과 03

상
어

22살의 삶은 시련하고 지독한 지구의 날카로운 가시밭에서 피투참이가 되었다

그 더러운 부엌은 사실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고 이쁜 것이라고 속여왔던 가시의 겉대기를 알아챈 순간부터 시작된 상처를 숨기고 새겨 상여가 자라고 있어 부풀어 오르는 배를 감추려고 했던 22년의 시간은

이제서야 드디어 상어 편이 되어 상어가 손을 뻗으려 해도 이미 닿지 않는

미나서 돌아올 줄 모르는 어부를 기다리지 말고 버리라고 재촉한다.

자기의 몸을 치료해주는 의사를 찾기 위해 백선지도 모르는 기차에 무작정 몸을 싣고

용안을 귀에 꽂으면 어디로가 떠난다. 번어리 장님이 되새겨진 세상밖으로 도망친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지녔거나 애타게 자기를 끌어안아 이해해주고 타인보다 자기를 위로해주는

본명 처음 만남을에도 찾아온 향동이 언니같이 날리고 반가운 누군가

자기와 같은 여자를 떠나온 친구 만나기를 기대하며, 자기 못 하나 거둘 수 없는 안식처를 찾아

바다 내용을 만을까 하고 근처로 찾아가 그 곳에서 우연히 이성주의 학구를 만나고 이성주의를 만난다.

두고온 어린 새끼상어를 생각해 큰 배에 몸을 싣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지는 못하지만

살아는 22년 처음으로 호수를 길게 내보고 천천히 윤영을 해보기도하고, 갈수를 타보기도

물장구를 치며 어설픈 다이빙을 시도해보기도 한다.

상어를 거꾸는 각종 율타리, 미세한 권력들의 손짓들 속에서 꿈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도 전에

그들이 상어의 피 속 깊이 넣어준 그들의 풀 속 감추어두었던 상어의 꿈은 이제 억지노력하며 가면을 찾아 헤메지 않아도 된다.

여성주의 바다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붙여준 이름대로 마녀도 미친아자도 천사도 매춘부 급자도 삼순이도 아니다.

대신에 상어는 자기 존재의 목소리에만 오롯이 귀 기울일 뿐이다. 상어는 이제 무한의 플랑크톤이 숨쉬는

역성주의 자궁 안에서 수백 개의 귀와 코와 눈, 수천 개의 혀를 가진다. 살아가 자기의 주인이 아닌.

무한계의 감각기관들을 주정부별 대담은 누군가의 하대가 아니라 상어는 이제 스스로 자기의 감옥에 갇히게

자기의 부자유, 자기의 나약함 그 안에 자기를 두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지의 피조물이기에

살아가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자기가 갇힌 감옥 안에서 수 많은 상어의 번식과 함께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어

내 몸을 잃었지만 수원의 나로 돌입하여 무한한 바다 그 자체가 된다. 상어는 이제 바다 안에서 고래가 되기도

가오리가 되기도 한다. 해초와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해초가 되어버린다.

상어 몸 안에서 흘러져 나오는 몸의 파편들, 한번의 파도를 견뎌내고 두번의 흐름을 할 때마다

잊혀진 육지위에서의 꿈을 되살아나게 한다. 꿈을 거리기만 하고 한번도 드러나 보이지는 않았던

그 환상과 진정한 현실 사이에서 무한히 상어새끼들을 출산하며 다시 소멸해간다.

정체없는 여행이 끝나면 상어는 한 여름밤 여성주의 바다에서의 추억을 되새김질 하며

생리상 어릴때 그만두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난생처음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지도...

특집; 여성주의자에 대한
그녀들의 생각

여성주의자와 여성주의 활동가

"총여실 반대 3년차"와 "여성주의 활동가" 사이에서

●● 0. 읽지 않아도 되는 글 쓰는 사람의 위밍업 문단

대체에 글을 쓰는 것은 오랜만이다. 어떤 일인지 나도 함께해도 될까, 하고 슬금슬금 다가가서는 함께 회의를 하고 딱딱 이 글을 쓰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양심이 없지는 않다.) 어떤 형식이 좋을까. 지하철을 타고 신촌에서 신도림까지, 또 신도림에서 부평까지, 또 부평에서 동막까지, 또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동안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다. 어떤 형식이 좋을까.

글을 쓰지 않게 된 것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내 안에는 분열과 모순과 끝없이 치고 올라오는 반박과 역겨움과 자책만이 가득했다. 글로 쓰면 그것은 확실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쓰지 않았다. 쓸 수 없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쓴 글도 부분적으로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 글의 앞 몇 문장 뒤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도 글을 쓰려고 한다. 지금은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좋을까. 내게 가장 의미 있는 형식으로 써도 좋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일인칭의, 나의 이야기를. 나에게 있어서 이면이 가장 많이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좀 더 설명적인,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한 형식을 생각해 본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이 글의 주제 : (학내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여성주의자와 여성주의 활동가는 다른 개념이다.

어떻게 다른가?

- ① 여성주의자 : 여성주의자로 자신을 규정하는 자
- ② 여성주의 활동가 : 단체에 속해서(이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걸까?) 조직적, 계획적, 직업

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성주의의 운동을 하는 자

-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순환적이다. 여성주의 활동가가 여성주의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여성주의자의 자기규정은 쉽지 않다.

그러나 역시 써 놓고 보니, 저기에 충실한 설명을 붙인다면 아마 읽는 사람과는 별로 상관도 없을 장황한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독자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지가 않다. 사실 내가 쓰고 싶었던 건 총여학생회실 반대 3년차(본인)의 애환 정도였던 것이다. 잘 쓰고는 싶지만, 그리고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지만, 잘 쓰려고 너무 진지하게 노력해봐도 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질 뿐이다. 나조차도 쓰다가 달아난 적이 여러 번.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쓰려고 한다. 편하고 재미있게 쓴 글이 읽기도 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다 써 놓고 보니 별로 재미없다. 이런.)

●● 1. "나는 총여가 아니다"

회의 때 정한 이 글의 원래 제목은 "너, 총여냐?"였다. 저 말은 이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의 반대 의미를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로서, 사실 훌륭한 제목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 글을 맡게 된 순간 저 문구를 제목으로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저 말을 너무도 싫어하기 때문이다. (말투가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나는 총여가 아니다". (문법이 엉성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질문 자체가 그러하였던 것을 어찌하나. 나는 우문현답을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 나는 대답한다. 그러면 그들은 안심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니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성주의자, 여성주의 활동가,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여성학을 공부하는 사람, 심지어 성차별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사람, 조금 까다롭게(?) 상식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인데도 구는 사람, 조금 무서운(?) 많은 사람들이 총여학

생회에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지) 사람, 그리고 기타 동등한 모두 "총여"라는 한 단어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사실 "나는 총여학 생회장도 아니고 부회장도 아니고 집행부도 아니야. 그리고 현재 총여학생회에서 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라는 뜻만을 담아 대답한 것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제 여성주의자도 아니고 여성주의 활동가도 아니고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며 성차별이라는 단어는 그냥 요즘 트렌드인 것 같으니 어쩌다 나온 것 같고 까다로워 보이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같이 슬렁슬렁 잘 지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보니 얼굴도 동글동글 눈매도 처진 것이 별로 무섭게 생기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이전에 '총여'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이제 정신 차릴 모양이지? 하긴 뭐 이제 3학년이니 정신 차릴 때도 되었지 자기라고 뭐 별 다르겠어 호호호 기타 등등".

그들의 적이 안심한 부드러운 표정을 보면서 나는 사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하며 '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내 삶에는 설명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내 인생도 남들 인생과 똑같이 복잡다단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고민은 너무도 많다. 지하철에서 눈물 콧물을 툭툭 떨어뜨리며 그곳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드는 것이 나의 심심치 않은 일상이란 말이다. 그런데, 왜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도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글을 쓰기로 하였다. "총여"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게 되는 저러한 질문이 나의 양심의 이상한 부분과 맞물려 나의 정체성을 '빈대'로 몰아붙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1. "오, 나 총여"라고 대답해 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지만 그런 대답을 하였을 때 그들의 표정은 참으로 한 중 혼인 인간관계를 암울한 표정으로 보다 되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 2-1 "그럼 나는 뭘까?"

나는 2003년에 대학에 입학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입학식 전에 총여학생회실 문을 열게 되었고 웬지 모르게 그곳에 상주하는 인간이 되었다. (설마 그런 분이냐 없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나 '웬지 모르게'가 궁금하다면 문의바람. 알려드립니다) 아주 잠깐 동안은 "응, 나 총여야"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나는 총여가 아니"었다. 섹슈얼리티 문화제나 여성제를 기획하는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포스터도 붙이고 짐을 나르기도 하고 공청회에도 가고 자료집도 만들고 총여학생회에서 발간하는 매체에 글을 실기도 하고 매체나 자료집이나 포스터에서 오탈자를 찾아서 라벨을 붙이기도 하고 함께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총여학생회의 사입과 관련된 일은 아무 것도 안 하기도 하면서 "나는 총여가 아니"었다. 그리고 "총여가 아니다."

"그럼 나는 뭘까?" 나는 내가 늘 우스개소리로 말하듯이 "총여학생회실 반대 3년차"인 지도 모른다. 총여를 '총여'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다. 나는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여성학 책이나 관련 소설을 뒤적뒤적 하며 가끔 세미나도 하는 사람이고 여성주의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성차별 혹은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사람이고 사실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며 또 어쩌면 조금 무서운 사람이고 기타 등등이다. 다만 나는 총여가 아니고 여성주의 활동가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여성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 2-2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단적으로 말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내가 위에서 이야기한 일만은 비슷한 것을 뛰어넘는 부분이다. 이것은 감정이고, 또 경험이다. 나는

'되게' 까다로운데 대개의 경우 친절한 사람이라서 그 어떤 조직에서든 즐겁게 생활하지 못한다. 친절하니까 견딜 수는 있는데 까다로워서 즐겁지는 않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다고? 특별히 그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외로움을 즐긴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있지도 못한다.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는 더욱. 나는 어느 공동체에도, 어느 조직에도 계속 있지 못하였고 (여기에 아주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활동가이지도 않고 활동가가 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행하지는 않는다. 눈앞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고민 속에서 살아가기에 급급할 뿐.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칭하지 못하였다. 미안했으니까. 나와 그들을 여성주의자라는 한 단어의 범주로 같이 묶기에는, 내가 너무 미안했으니까.

한편으로 또 그것은 경험의 문제이다. 여성주의라는 것을 접한 것은 대학에 입학한 후였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 처음 총여학생회실을 방문했을 때 당시 집행부였던 분들은 내게 이것저것 매체를 챙겨주었다. 2002년 총여학생회 매체 <떡볶이수다> 몇 권, 꾸준히 활동해 오던 여성주의 자치 언론 <두입술> 몇 권, 사회과학대에서 활동했던 여성주의 자치단체 "비온드"에서 발간한 자료집과 문과대 여성주의 동아리 "모반"의 자료집, 그리고 여성학 도서관(현재도 총여학생회실 안에 존재하는)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페미니리"의 잡지 <페미니리>까지. 솔직히 나는 그 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미안한 말이지만) 다 똑같은 데에서 나온 것이겠거니 한 것이다. 나는 그 중 <두입술>을 가장 감명 깊게, 그야말로 감명 깊게 읽었고, 그러나 여전히 다 똑같은 데서 나온 것이려니 라는 천동벌거숭이 같은 생각으로 개강 첫 날 다시 총여학생회실 문을 열었다.

그 후의 날들은 꽤나 힘든 날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내가 너무도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사실 나는 너무 아무 것도 몰랐다. 그 무엇

도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결정하거나 제대로 해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활동가들의 조직이다. 그들은 '활동가'로서의 공약을 내세우고 선거에 입한다. 그들이 내부에서 무슨 훌륭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것은 외부에서, 그들을 뽑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별로 상관도 없는 일일 것이다. 나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행사의 기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제대로 된 참여자가 되는 일이었음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리고 좀더 책을 읽고 좀 더 여성주의와 여성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러면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찾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 한 학기가 지날 무렵 나는 함께 활동하던 친구에게 그러한 말을, 무뎌 플레이스에서 샌드위치 부스러기로 기린을 만들면서, 친구 얼굴은 바라보지 못하고 접시만 깨작대며 하였다. 나는 총여학생회가 아니라 "모반"에 있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상상도 결국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나는 "모반"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말하면 총여학생회가 아닌 다른 여성주의 단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대체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여성주의자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꾸려 나가고 있는지 거의 전혀 알지 못했다. 총여학생회를 제외하고 위에 열거한 단체 중 내가 입학한 이래 매체 혹은 자료집을 꾸준히 발간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한 단체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할 따름) 정리하면, 나는 활동가, 그것도 총여학생회 활동가 이외의 여성주의자의 여성주의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해 유의미한 상상을 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활동가가 아닌 나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칭할 수 없었다.

●● 3. 여성주의자로서의 자기규정

며칠 전 회의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결국 자기규

정의 문제라고 생각해. 여성주의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물론 아예 기준이 없지는 않겠지만,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고 있느냐,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해." 덧붙여 그녀는 말했다. "뭘든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구. 뭘든 말야. 여성주의 언론, 여성주의 학회, 여성주의적으로 차마시기, 여성주의적으로 술 마시기, 여성주의적으로 놀기……. 여성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없잖아." 그녀는 스스로를 여성주의 활동가로 정체화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도저히 여성주의자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걸. 여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해 놓고 앉아서 성매매 여성을 '일반 여성'과 구분하고 타자화시키는 사람도 보았고, 그리고 고민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여성주의자라고 하기는 어렵잖겠어?"

여성주의, 혹은 여성주의자를 최대한 적합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또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작업이다. 어느 사람처럼 여성주의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정의가 가능하다면 나 역시 자기규정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에 대해 다른 친구가 한 이야기에 공감하면서도 말이다.

자기규정이란, 제멋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내 주변에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훌륭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더러 있지만 그녀들은 결코 그녀들을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주의적인, 혹은 그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녀들은 여성주의자를 자기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거나 자신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규정에는 여성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성차별은 부당해, 성폭력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더러는 실천하고 더러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기 위해서는,³⁾ 여성학 책을

3) 총여의 '총여' 혹은 '총여'의 이 글에서의 용법 구분은 이미 하설오라와 병기한다.

한 번이라도 뒤적거리 보거나 여성주의 단체에서 발간하는 매체나 웹진을 뒤적거리 보거나 무엇보다 주변에 여성주의적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필요하다. 다른 모든 경우에서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힘을 북돋워주는 타자 없이는 튼튼한 정체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타자, 특히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고 있는 긍정적인 타자의 존재는 자기규정에 있어서 연세대대학교 학생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된다. 이는 결국 또 다시 앞에서 언급한 문제와 연결되는데,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자기규정을 하지 못했던 이유와도 연결되는데, 연세대대학교에서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기는 결코 쉽지 않으며(물론 필연으로 만나기는 이보다 쉽다. 총여학생회실 문을 열면 된다.) 눈에 보이는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주의 활동가'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활동가가 아닌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4. 결론

앞에서 계속 여성주의자와 여성주의 활동가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해 이리저리한 핑계거리를 제공하였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성주의자'

3 왜 굳이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해야 하는가? 이쯤에서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성별 관련 관계나 거부관계의 모습, 그리고 너무도 흔하게 인용되는 성차별이나 성폭력 등의 개념을 알고 고인의 병환과 실현의 방향을 잡는 데에는 여성주의자의 정체화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생각의 어떤 부분에서 빠져 무엇인가 상실하고 생각한다. 이쯤에 대해 지금의 친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성차별이나 성폭력 관련에 느껴지는 시정해려 노력하거나 적어도 고인에 할배이고 이사도 통 방식은 또 지금의 관계적이고 진정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들은, 그러나 왜인지 모르게 결론에 대해서는 지금의 비현실적이라 잘 들여보면 그녀들의 삶의 계획에 '결론'이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는데도, 그녀들은 결론을 생각하고 의문을 한다. 한 번이라도 관점을 뒤집어 보는 경험을 하지 않는 한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배적인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다. 그녀들의 경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들이 경험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경험한 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막연한 성차별이나 성폭력 개념이 아닌 '여성주의'는, 그리고 이후의 여성주의자들의 정체화는 반드시 친목적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튀든 말이 없었으면 좋겠다구. 튀든 말이 여성주의적으로 차라지, 여성주의적으로 솔직하게 여성주의적으로 놀기——, 여성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없잖아'

와 여성주의 활동가는 다른 개념이다. 활동가가 아닌 (나를 포함한) 여성주의자 여러분, 마음껏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시라' 였지 (나를 포함한) 여러분 그러니 그냥 그대로 사시라'는 아니었다.

●● 5. 결론으로 가기 위하여: 여기부터는 읽어 주었으면 좋겠는 여담

앞서 자기규정에 관해 말한 활동가 친구의 이야기들 내 멋대로 해석해보자면 결국 그녀가 꿈꾸는 세상은 '여성주의적'인 세상이지 모두가 활동가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은 아니다. ('여성주의적'이라는 말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겠으나.) 그리고 그것은 매우 즐거운 세상일 것 같다.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총여학생회실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잘 되지는 않았다. 여성주의가 무슨 마법의 지팡이도 아니고 내가 전창이라고 여기고 있던 나의 삶을 갑자기 꽃밭으로 뒤바꿔 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삶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기까지 하였다. 나는 활동가로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미적지근하게 일을 돕거나 아니면 주춤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활동가가 아닌 내가 여성주의의 단물만 빨아먹으며(?) 즐겁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하는 돼먹지 않은 양심의 가책이나 느끼고 있었다. 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더라. 그러나 조금 즐겁고 약간 행복하고 대개 올바른 삶은 가능하지 않을까?

나에게는 완충지대가 필요했다. (완충지대라니, 아주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총여학생회실 반대 3년차'와 '여성주의 활동가' 사이의 그냥 '여성주의자' 지대가 필요했다. 조금 즐겁고 약간 행복하고 대개 올바른, 그런 지대가 필요했다. 지금도 필요하다. 그리고 농담 같지만, 그 사이에는 '여성주의적으로 차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by_

by_ 몽 아직 시련이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는 말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수다" - 여성주의자에 대한 오해와 이해"

여성주의자는 편협하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성에 대해 폐쇄적이다/ 남성혐오주의자다/ 모두 담배를 핀다? '여성주의자'라는 말에 붙어 있는 백만 개쯤 될 것 같은 딱지들. 그런 딱지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물음에서 이번 특집은 시작되었다.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정의라는 건 내릴 수 없기에 저러한 말이 "오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편견 섞인 말들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들 각자가 꿈꾸는 여성주의, 되고 싶은 여성주의자에 대한 약간의 내밀한 고백도 덧붙였다.

단일한 하나의 글 대신 좌담이라는 형식을 빌려 수다스런 대화를 진행한 것은, 여성주의자들은 고정된 집단이 아니며 여성주의 안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럼, 지금부터 왓치 절한 수다 안으로 들어가 보자.

1. 여성주의자에 대한 여러 오해들과 시선 그에 얽힌 에피소드와 생각들을 풀어봅시다.

평: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편견 중의 하나는, 여성주의자들은 담배를 피운다는 것 같아요.

고래: 실제로 여성주의자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기도 해요.

몽: 담배 피우는 여성을 보며 사람들은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여자가 담배 피우면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담배 피는 여자들은 객기를 부리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평: 여성주의자 중에 흡연자가 더 많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똑같이 담배 피는 사람이라도, 여성주의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당당하게 피는 거 같아요. 내 친구 중에 여성주의자가 아닌 흡연자가 있는데, 친한 친구들이나 담배를 피워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사람 함께 있을 때는 피우지만, 남자랑 있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잘 피우지 않아요.

비안 : 그런데 그 비율이 높은 것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담배를 피우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경계를 긋고,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이렇 거야, 혹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은 이렇 거야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남성에게는 그런 식의 말은 잘 안하잖아요. 여성의 흡연을 그냥 기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고래 : 나 같은 경우에도 여성주의자가 되면서 담배를 끊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성주의자로 나를 생각하면서 담배에 대한 경계심이나 억압을 벗어버렸던 것도 하나의 이유죠.

몽 : 여성주의자는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편견이 아니고 사실인가? 우리 모두 무서운 사람들일까? 예전에 한 수업 시간에 성매매에 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라고 한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평소에 선생님이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쓰러질 정도로 심한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똥 :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했군요? ::

몽 : 성매매는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 자연스러운 것이다, 별로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혹은 남자는 마음의 방이 9개가 있고 여자는 마음의 방이 하나 밖에 없어서 남자는 여러 여자를 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가 막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평소에 나를 여성주의자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를 지목해서 앞에 나와서 발언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었는데 그 수업시간이 끝나고 아는 애들이 나보고 무섭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뒤에서 수군수군 거렸어요. 그리고 총여라고 하면 무서워하잖아요.

똥 : 맞아요. 내가 총여에 발을 하나쯤 담고 있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잠시 당황하다가 "치마가 짧다던가 다리가 예쁘다던가"라고 말하면 총여에서 잡아가?" 라고 물어서 매우 당황한 기억이 있어요. 총여는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사법 집행기관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성주의 일반에 대한 오해라기보다는 총여학생회에 대한 커다란 오해인 거

같아요.

몽 : 그런데 그들에게 여성주의자와 총여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같기도 해요.

똥 :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여성주의에 대해 만물박사인 것처럼 온갖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성폭력의 경우에, 그 상황과 맥락이 매우 중요한 건데 뭔가 수식 대입하듯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거냐 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모든 여성주의자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똥 :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남녀평등에 관련한 발언을 하면 "너 페미니"라는 질문을 하는데, 싫어하고 비하하는 의미와 함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가? 사회 부적응자 쯤? 불순분자 뭐 이런 거?

몽 : 대학 와서 1학년 때 섹슈얼리티 문화제 포스터를 붙이다가 중학교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포스터 붙이는 걸 보더니 "너 혹시 총여학생회?" 라고 물어보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버렸어요. 성평등에 대해서는 다들 쉽게 말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도 고등학교 때 그랬던 거 같고.

비안 : 여성주의를 여성우월주의, 혹은 여성의 권리만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듯. 그런데 반면에 이제 는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주의를 말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것쯤으로, 이제는 평등하지 않냐, 왜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똥 : 여성주의자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오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자는, 실제로 성차별을 당하거나 여성주의에 반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오버한다는 생각과 함께 무서운 애라는 생각을 동시에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비안 : 나는 여성주의자들이 "무엇이 옳다/그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와 같이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성주의자들을 "무엇을 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까다로운 사람들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의문을 던지는 것인데 말이죠.

고래 : 저는 그것이 '성'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같아요.

비안 : 음, 더 일상적이라서 그렇단 애긴가요?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 추상적인 논의로 보는 반면에, 여성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기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고래 : 누구든 나름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성학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몽 : 여성주의자들은 성적으로 폐쇄적이다, 혹은 개방적이다 라고 하는 말들도 있어요.

똥 : 개방적인 것과 폐쇄적인 것이 양립할 수 있나? 성폭력 이야기를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적으로 개방된 사람이라 신체접촉을 자연스럽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다. 딴 의도는 없었어." 라는 식의.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폭력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를 보수적/폐쇄적으로 보이겠죠.

비안 : 나 예전에,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팔을 잡길래 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되려 남자친구한테도 그러냐 라고 했던 어이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서로의 관계와 맥락에 따라 다른 거지, 내가 보수적이나 개방적이라는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몽 : 그리고 성폭력에 왜 이렇게 민감하냐 라고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아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항상 피해의식에 젖어있냐고, 이를 테면, 솔직히 남자랑 섹스 몇 번 하는 게 뭐 대수냐 그러면서



그림: 정은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너무 수치심 갖지 말라고.

고래 : 아니, 섹스하는 것과 성폭력은 맥락이 너무 다른 거잖아. 그걸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했던 말이에요요?

몽 : 성폭력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섹스 자체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 거죠. '성폭력을 조금만 당해도 그렇게 쉽게 움츠러드는 거다. 전체적으로 개방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사람은 말했던 거죠.

똥 : 근데 성폭력이 그냥 폭력과 달리 '성폭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몽 : 사실은 제발 같이 취급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기도 해요. :: 제발 형사처벌 좀 제대로 해주셈——

똥 : 그럼 우린 폐쇄적인 거야 보수적인 거야, 진보적인 거야? 개방적인 건 또 뭐야?

몽 : 진보적인 게 개방적인 거야? (다들 웃음)

똥 : 포르노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주의자들은 포르노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잘 살펴볼 것은, 포르노가 남성의 성적 환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성적노리개로만 묘사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거기에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해서 여성주의자들이 문제 삼는 것이지, 단순히 성행위 장면이나 야한 것을 다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성주의자들이

아까도 여성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고 막연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여성주의가 그만큼 고정되어있지 않고 소통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런 것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르노를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네는 그러면 모든 성에 대한 이야기를 반대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고래: 그래서 난 섹스라는 용어를 쓰기가 싫어요. 이미 통용되는 섹스라는 용어 자체에, 너무 남성 중심적인 것이 들어있어서 다른 용어를 개발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결합성교만을 섹스라고 생각하고.

비안: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거죠.

똥: 사람들이 여성주의자들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그러나 사실 여성주의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사실이고 아무리 여성주의자라해도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결혼을 예를 들면, 그것 자체가 여성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안적인 결혼생활을 꾸릴 수도 있는 것인데, 난 여성주의자인데 왜 결혼을 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

내가 되고 싶은 '여성주의자'

똥: 사실 저는 아직도 여성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더 하면 될까요? 여성주의가 체험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만은 아니고, 공부를 하거나 사는 게 바쁘고, 최근 들어서는 fenergy로 충

만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건 매우 고달프고 세상의 힘든 것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여성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여성주의를 실천하고, 여성주의적인 환경 안에서 작업을 해나가는 일도 여성주의자로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고래: 똥이 되고 싶은 여성주의자는, 실천하는 여성주의자?

똥: 네, 뭔가 잘 사는 여성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요즘 하자센터에서 수업 듣는 것이 있는데, 그 공간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나마 여성주의를 보고 배우고 아주 약간은 실천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좋은 실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토닥: 저는 신입생 때 여성주의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여성주의가 나를 가장 많이 바꿔주었던 것은 내안의 명예남성성을 통렬하게 성찰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해주었던 것. 좋진 않았지만 ^^ 현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때부터 여자 친구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되고 싶은 여성주의자라는 것은, 정말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려면 타인의 목소리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성주의 자체가 소수자의 운동이니까 다른 소수자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언제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똥: 저도 똥이 말했던 것처럼 여성주의에는 실천이나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뭐든 하는 것은 세상에 미안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여성주의가 저를 많이 괴롭게 했죠. 물론 그것은 여성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주의가 비판하는 것이 내 안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나라도 즐겁게 살아야지라는 생

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즐겁게 지내는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막상 여성주의자로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여기 붙어있었던 것은 밖에 나가는 것이 더 괴로웠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사실, 이 공간이 학교와 이 사회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고래: 뭔가 슬퍼요.

똥: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 공간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수다 떨면서 뭔가 풀어내는 것. 여자 친구들끼리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즐겁게 살아보자. 내가 꿈꾸는 여성주의적 세상은 뭘까. 여성주의적으로 차 마시는 세상은 뭘까. 내 생각엔 토닥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적인 세상인 거 같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게 딱 여성주의와 맞물리는 이야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비안: 앞의 말들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말을 시작하면, 처음에 '두입술'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성주의가 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딱히 여성주의자가 되고 싶다고보다는, 저 사람들의 공간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건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멋져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당당하고,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입장이 서 있고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한 마디로 매우 좋아보였던 거죠. 나도 저 사람들 틈에 끼어있고 싶었던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같아요. 나 스스로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토닥: 내가 되고 싶은 여성주의자는, 나라는 존재를 정말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성주의를 접하면서 많은 부분 나를 긍정하기도 했고, 나와 안 맞는 것을 과감히 벗어버리기도 했어요. 내 옷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래: 저는 여성주의를 통해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내가 가졌던 성폭력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고 있었던 일로 치부하며 살아갔던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 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나를 인정하고, 많은 부분 억압되었던 내 모습을 되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 없이 여성주의를 택했어요.

제가 되고 싶은 여성주의자는요. 일단은 여성주의를 내 삶에 끌어들이면서 내가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받았던 여성주의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우 다양한 여성주의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는 여성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비안: 참, 예전에 10년 뒤의 모습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 때 '현명한 여성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썼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현명하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뜻을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여성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고 막연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여성주의가 그만큼 고정되어있지 않고 소통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런 것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것이 현명한 여성주의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고래: 다들 멋있어요.

'오해'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해'까지 흘러간 한 시간 반의 수다동안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여성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서도 손쉽게 확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성주의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자원과 많은 에너지를 주었음에 공감했고, 앞으로도 여성주의자로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같은면서 또 다른 우리들의 이야기는, 각자의 언어를 스스로 말하는데도 서로 공명하며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듯했다. 그리고 최담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리글 비안

[외부청탁글]

여성운동, 모두 할 수 있다는 희망

by_ zozel(zozeda@hotmail.com) 언니네트워크 대표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5년 3월 특집 "지속가능한 여성운동" 중.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일이다. 한 선배 언니가 내게 물었다.

"너는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니?"

매우 진지하고 다정한 얼굴로 물었던 선배 언니의 태도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을 보면... 사회에 대해 이제 막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기 시작한 대학 초년생이 뭔가 그럴듯한 대답을 했을 리는 없고, 멀뚱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거나 어빙방한 표정으로 황설수설하지 않았을까. 그 때, 그 언니는 내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운동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 글을 쓰기 위해 최근의 언니네와 (언니네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인) 언니네트워크 활동을 둘러싼 여러가지 단상들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저 오래 된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때 그 언니의 말을 지금, 현재의 의미로써 다시 살려내려는 나를 발견했다.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한다. 과연 어떻게?

●●
나도, 그리고 당신도 여성주의 활동가입니다!

사실 나 스스로 '활동가'라는 말과 '여성운동을 한다'는 말을 어색하게 느끼지 않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그럼 여성운동이 아니면 뭐 줄 알았다고 하겠지만. -_-) 그것은 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웹진을 운영하는 사업체로 출발했던 언니네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금도 외부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언니네는, '언론'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로, 그리고 '여성운동단체'로 다채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캠프며 여행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가는 요즘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조금 더 지나면 사람들이 언니네 혹은 언니네트워드를 '문화기획집단'으로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다.

그렇게 다양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언니네와 언니네트워드를,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 덕분이다. 말하자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운영진이건 회원이건, 혹은 조직의 형태가 단체건 아니건, 내가 이 곳에서 활동하는 만큼 이 공간에서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해서 꾸려갈 수 있다'는 활동의 논리를 함께 키워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영진들도 따로 또 같이, 즉 각자의 영역들을 가지면서 언니네에 관여하고 있으며, 양쪽의 경험을 통해 활동가로서 가질 수 있는 영역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언니네/언니네트워드 사무국의 실제 상근자가 두사람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차근차근 추진되어가는 것, 또한 그 다양한들이 백화점식 사업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에 빠지지 않고 내적인 모순을 겪지 않는 이유 역시 그 덕분이다.

며칠 전, 나는 얼마 전부터 운영진으로 함께 하게 된 친구가 '난 활동가는 아니지만...'이라고 말의 첫머리를 때는 것을 보고, 시원스럽게 '아니긴, 언니네 활동가잖아.'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 그런가?'라고 말하는 그 친구와 함께 웃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언니네의 프로젝트에 어떤 방식으로건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활동들을 자기 생활의 일부로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중에는 자신이 '활동가'인가 아닌가에 대해 그다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이들도 있다. 나는 물론 그들 모두를 활동가라고 보지만, 스스로 그런 면들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 역시 그런대로 좋다고 생각한다. 우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 혹은 페미니스트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그런 생각 속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일들을 꾸미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순간을 맞기도 한다. 그리

직업으로써의 여성주의 활동가를 택한 이들, 다른 영역과 여성주의를 가로지르며 활동하는 이들은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서로 다른 활동의 방식을 택한 것만큼 그를 존중하는 방식 역시 달라야 한다.

고 이는 '직업'으로써 활동가의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내가 아는 한 친구는 졸업을 앞두고 한 선배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졸업하면 뭐할거야?'

'글쎄요... 이러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일단 취직해서 일을 좀 해보려구요.'

'음... 그래? 그럼, 운동은 안 하겠다는 거구나.'

나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어처구니가 없었다.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일들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운동을 안 하겠다는 것과 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 나는 운동적인 삶, 내가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삶이 단지 활동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운동이란 여성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면, 그 운동을 둘러싼 영역과 의미는 얼마나 좁아져 버리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의 변화는 언제쯤이나 이를 수 있게 될까.

●●
활동가, 그들이 전문성을 획득하기까지

직업으로써의 여성주의 활동가를 택한 이들, 다른 영역과 여성주의를 가로지르며 활동하는 이들은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서로 다른 활동의 방식을 택한 것만큼 그를 존중



하는 방식 역시 달라야 한다. 전자와 후자가 각각 축적해나가는 전문성 역시 서로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취직을 위한 이력서에 여성주의 활동에 대해 기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까지 가지 않더라도, 심지어 여성운동의 영역 내에서도 열심히 일해 온 활동가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스러운 현실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활동가의 전문성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많은 활동가들에게 '전문성'이 좌절스러운 것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때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대개 운동의 영역이 아닌 외부적 권위와 시선에 의해 규정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단체의 활동, 혹은 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격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소위 '객관적' 기준에 의한 전문성이라는 것이다. 몇십년간 한 분야에서 운동을 해온 활동가의 문제의식과 경험적 지식보다, 사회제도적 권위를 획득한 '전문가'들의 언어, 그들이 흡수하여 제도화한 논리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 위에 우리는 서있다. 운동의 영역을 구성하는 논리, 그 전문성이 왜 외부적 권위에 의해 지배당해야 하는가?

운동의 경험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으로서의 평가의 논리와 인정 체계가 필요하다. 각 활동에 대한 기록에는 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 활동을 둘러싼 경험과 유무형의 결과들 역시 그 사람의 경력에 분명히 기입되고 활동의 전문성으로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운동의 영역에서만이라도 다른 방식의 인정과 존중의 분위기가 생겨난다면, 그것이 운동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언니네트워크 사람들과 '여성주의 박람회'를 열어보면 재미있고 의미도 크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한 적이 있다. 각자 학교에서 혹은 그 어떤 공간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신이 직접 생산했거나 수집한 수많은 자료들과 기념품들을 모아 전시해보는 것이다. 이 작업은 단순히 그 기억을 환기시키고 맥락을 짚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활동과 그 속에서의 활동가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역사화하고 의미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지난날 얼마나 수많은 활동의 결과물들, 자료집의 내용들을 출처없이 갖다 쓰곤 했었는가. 운동의 결과물은 공동의 자원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그 귀중한 작업들을 다른 곳에 함부로 갖다 쓰거나 출처 없이 뿌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여성주의의 씨앗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짝이 돌아난 가지들을 어지럽게 얹어놓는 일이다.

●● 지속 가능한, 나의 여성운동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동을 하며 살아간다. 라는 말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잔뜩 치장되고 허끝에 달려있는 고정된 매력이나 욕망과 상상과 변화가 있는 동적인 매력일 때, 그 활기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나는 가끔 왈가왈부하게 모여 서로의 생각들을 마구 뒤섞게 하는 언니네트워크 회의 시간을 보며, 이렇게 우리의 상상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씩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는다.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있다면 어떤 곳에 서있더라도 고립되지 않고 지치지 않을 거라는 희망, 그리고 '나의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언제나 갈 길은 멀었지만, 그 속에서 길을 잃지는 않으리라는 희망도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운동은 지속 가능하다.

제8회 여성제

라퐁젤, 성을 탈출하다

이제 라퐁젤은 더 이상 성 안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녀는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누구와 함께든 원하는 관계맺기를 하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라퐁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할 수도 있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할 수도 있다. 그녀는 혼자 살 것인지, 누군가와 함께 살 것인지, 함께 산다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녀가 자신의 노래로 생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합창단에 들어가거나 솔로 음반을 취입할 수도 있다. 또는 장기간의 모발관리 경험을 살린 모발 관리사나, 놓고 멋지지만 절대로 누군가를 가두지 않을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될 수도 있다.

성을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라퐁젤, 마치 자신을 구해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말 안 통하는 왕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라퐁젤, 누군가를 가둔 모든 성을 함께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라퐁젤, 그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여성주의자로서 성폭력과 마주하기



그림, lazypicnic.com

‘여성주의 덕보기’라는 제목으로 계속 ‘그녀, 틈 사이로 바람을 불다’에 글을 쓰고 있는데, 이번 호만큼 글 쓰는 데 오래 걸린 적이 없었다. 주제를 성폭력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여성주의자가 되고 나서 성폭력과 마주하는 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성폭력을 당한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만일까? 중학교 때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엄마가 나를 걱정하기보다는 왜 밤에 그런 데를 나가느냐고 야단을 쳤었다. 나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이며, 밤에 공연히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성폭력을 당하고¹⁾,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모님에게 모든 얘기를 다 했다. 그 다음 날엔 그 전날의 일이 심리적 충격이었는지, 괜히 잠이 일찍 깨고 불안하다가 막 울음이 나왔다. 그런 나를 엄마는 안아주면서 그런 일은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렸어야 한다고 내게 위로 아닌 위로를 했다. 나는 나를 안아주고 있던 엄마를 뿌리치고 곧바로 내 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엄마의 위로는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 그런 일을 당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행위- 신고는

오히려 너를 괴롭게 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종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성폭력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혼자서 ‘잊어버리는 것’이 최고이다. 등등. 나는 이러한 인식을 거부했다.

물론 이것은 커다란 변화이다. 나는 내가 혼자 괴로워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더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공적인 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나처럼 페미니스트 공동체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하거나, 정서적인 유대를 쌓는 사람들은 성폭력이라는 화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경험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성폭력 경험을 많이 듣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나 역시 여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자료집이나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상상도 못하는 여러 장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한동안은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 그것은 마치 TV나 영화에서 무서운 이야기나 장면을 보고나서 두려운 기분이 드는 것 같은 것으로, 기분 나쁜 간접 경험과 같은 것이었다. 만약에 내가 여성주의자로 살기를 그때쯤에서 그만두었다면, 성폭력은 여전히 재수 없는 누군가한테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것인지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로 내게 남아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런 상태로 나한테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나는 여성에게 폭력적인 우리 사회의 젠더 구조를 비난하며, 혼자서 마구 이 사회를 비난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지금도 여성에게 폭력적인 이 사회를 비난한다. 또, 성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듣거나 내가 당한 성폭력을 떠올리며 두려워하기도 한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페미니즘이 성폭력을 대하는 내 자세에 다른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아마도 나처럼 다른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괴로웠을 것이다. 더 많은 성폭력 사건에 직면하는 것은 공포와 심한 고통을 가져다준다. 성폭력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혹은 다른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비페미니스트들보다 훨씬 많은 성폭력을 접할 것이다.

나는 그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에 접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페미니스트건 아니건 누구나 똑같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 ‘성폭력’이 무엇을 뜻하는 개념인지를 안다

는 것이다. 성폭력이 그저 재수 없는 극소수의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매우 일회적이며 뭔가 무서운 일이며 강간이라고만 생각했던 데에서 다른 곳으로 엄청난 전환을 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性)을 대개로 한 폭력이 기존의 위계적인 젠더 질서로 인해 일어남과 동시에 그것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른 식으로 성(性)을 학습하고, 다른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폭력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여기에 여성(성)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혐오하는 구조는 성폭력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한다.²⁾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로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적 행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단지 성적 행위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은 여성들이 사소한 행위에서까지 움츠러들게 하고,³⁾ 행동반경을(시간/공간 상으로) 좁히게 하고, 심각한 신체적/심리적 상치를 남기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성폭력이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호에서 다룬 것 같으니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여성주의 덕보기’ 코너에 몇 번 글을 쓰고, 이번에도 쓰면서 들었던 고민은, 내가 혹시 이제까지 쓴 글들이 단지 여성주의자로 사는 것이 단시간 내에 ‘개인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라거나, 개인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정도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

¹⁾ 이 사건은 성폭력에 대한 일련의 오해들을 깨뜨리는 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성폭력을 오후 3시경 버스 정류장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했다. 그리고 그 날 나는 옷을 평소보다도 훨씬 빨리 입고 평범하게 있었으며, 전혀 미안한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²⁾ ‘여성적’인 ‘no’는 ‘yes’다’라는 말은 어떻게 여성을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³⁾ 가령 공개적인 장소에서 배변을 볼 때, 되도록이면 무성적인 사람-성에 관심도 없고, 성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로 인식-한 듯 굴을 보려고 노력하거나, 정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에 심한 불쾌감을 느껴서 어떤 공간에는 접속조차 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피해가 아닌 ‘수치’가 되는 환경은 대체로 이런 인식이 암묵적으로 깔려있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여성으로서의 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한 억압을 사라지게 하는
행동을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나'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는 지점이었다. 살면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여성 '개인'의 분투나 발
전이 마치 여성주의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내가 위에 쓴 것처럼 이 사회의 젠더가 얼마나 '집
단적인' 문제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나는 내가 유난히 매력적이거나
유약해보이거나 젊어서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성' 이
라는 집단에 속해있기 때문에 성폭력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이다. 그러
나 내가 단지 여성의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 공포를 느끼고 움츠러들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부정하는
힘이 바로 페미니즘에서 나온다.

작년, 유명철 살인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을 때, 종
로에서 '달빛시위'⁵⁾에 참여하면서 나는 새삼 깨달았다. 내가 성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공포는 더해질 것이라는 것
을. 내게 문제가 되는 현상(現象)을 해결하기 위해 순간순간 노력하는
것 외에는 피로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5) 2004년 8월 13일, '달빛 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뒤덮는다'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시위.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위협 및 여성들의 몸신체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의 부당함을 알리고 민선으로서의 기본적인 몸의 자유, 몸신체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위였다. 작년에는 인사동-종로거리-국세청을 행진하여 마치 성폭 력이 여성의 몸조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올해에는 전국 19개 지역에 서 7월 29일 2회 달빛시위가 열렸다.

젠더로 인한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
해 페미니스트들은 부단히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서로 성폭력으로
인해 여성들이 부당한 평판을 얻는 것을 거부
해 왔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여성의
판단이 얼마든지 '중립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왔고, 성폭력이 폭력이라는 것을 인
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것은 나도 언제
든지 피해자의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했기 때문이다. 곧,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우리는 개개인의 안전과 치유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극복하는 것을 지지해
주고 내 주변의 위험을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도 있다. 이 행동은 더 많은 사람과 나
누려고 노력을 해야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여성으로서의
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성'이라
는 집단에 대한 억압을 사라지게 하는 행동을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나'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성폭력 그 자체가 가지는 성격 때문에, 여성
주의적인 의식 없이 성폭력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 것은 힘들다. 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언
어, 그것을 우리는 페미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by_

by_ 술래 놀라운 페미니스트가 되자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

강의실 교수 언어 성폭력
자료집 출간!

지난 학기동안 진행되었던 강의실 언어 성폭력 근절 캠페인 <그녀들
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해보는
그녀외람 자료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언어 성폭력 사
례들과 각 대학 여성주의 단체가 모여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놓은 좌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자료집은 중도 앞, 학관 앞,
총여학생회실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코멘트 환영해요!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늘, 맘대로 와작와작 미디어 씹기

휴학 기간까지 합쳐 5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들 중 몇 가지. 수업시간 50분은 길어도 방학 두 달은 짧다는 것.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겠노라며 계획을 세워대지만, 무슨무슨 공부를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것들과 어떻게어떻게 놀아 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반 정도도 실행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미 개강은 코앞이라는 것. 방학 말미의 수강신청은 할 때마다 짜증스럽고 듣고 싶은 과목은 당최 뵈지가 않고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때마다 한숨은 폭폭 잘도 나온다는 것. 이러다 보니 개강을 맞는 기분은 대략 투덜투덜, 궁시령궁시령, 아이고테이고, 아침이 되어도 눈은 안 떠지고, 9월이라고 해도 아직은 여름 기운이 남아 있어 시원하지도 않고, 대강대충 시작하는 새 학기가 반갑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등등... 아무튼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으로 개강을 맞고 교문을 들어서 (그녀, 틈사이로 바람을 불다)를 집어들었을 여러분들에게 반가움의 인사를 건넨다. "다들 잘 지냈어요?" ...자, 이제 인사도 마쳤겠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장면1

얼마 전, 매우 오랜만에 모 방송국의 연예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싶은 잡다한 얘기들에 술술 지루함이 몰려오던 중, 채널을 바꾸려 하기 직전 화면에 잡히는 한 연예인의 얼굴과 들려오는 리포터의 멘트, "XXX씨가 지난 X요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어쩌구 저쩌구..." 뭘 인권위? 하고 집중해서 들어 보니, 요지는 그 XXX씨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 그렇고, 눈물 고인 눈을 카메라에 들이대며 XXX씨 왈,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장면2

위의 프로그램을 보고 얼마 지난 후, 역시나 오랜만에(!!!) 모 방송국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몇 명 뺄놓고는 다 모르는 얼굴이고 낯선 코너들이어서 당최 어떤 타이밍에 웃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중,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옆에서 킬킬대며 즐겁게 TV를 보고 있던 동생의 한 마디. "어, 저 키 작은 게그면, 한참 안나오더니 이제 다시 나오나보네?" "영 누구?"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 알아야, 무슨 성폭행 어쩌구...때문에 한동안 TV 못나온다고 했었거든."

만약 이 세상이 제대로 되어있었다면 성폭력이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놈의 세상은 당최 제대로 되어먹은 구석이 없어 가해자에게는 관대하며 피해자에게는 준엄하기 짝이 없다. 덕분에 가해자는 금세 자신의 평온한 일상으로 풀풀로 복귀하는데 비해 피해자는 오랜 시간을 두고 치유를 위해 힘겹게 애를 써야 한다.

이런 기막힌 세상에 미디어가 한몫 단단히 안 할 수 없다.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자,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황색 언론들이 와르르 몰려들어 가해자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피해자는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러저러하게 반박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입장을 전한다. 가장 혼란 것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서로 좋아서 한 거였다'며 맞받아치는 화간설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이런 방법을 쓴 것 같다는 꽃뱀설이다.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들도 어찌나 많으신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 서신 언론들께서는 이런 가해자스러운 멘트를 누구누구씨의 공식 입장이라며 전달한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누구씨의 주장과는 많이 차이가 나서 진실을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이는 친절함도 발휘한다. 눈물 툭툭 흘리며 참회하는 가해자 - 초반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질색발색했던 - 를 보여주어 동정 여론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해자와 깊은 친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그럴 리 없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류의 이야기들을 오래오래 들어주기도 하고 (가해자가 무슨 도를경어라도 된단 말이나), 피해자의 모습을 비추고 뭘 말을 해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격고백 운운하며 의혹을 밝히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질 않나, '뭘 일 있었어?' 라는 듯 입 꼭 닫고 히죽거리며 TV에서 농담하고 있는 가해자가 있질 않나, 하이고.

언론님들 말씀대로라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에 수궁하면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가해자만이 범위를 저질렀다는 거겠네요. 근데 세상에 그런 가해자가 어딴수? 그리고 화간이라는 건 성관계를 가진 두 사람이 합의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거요. 어느 한 쪽이 강간이라고 주장한 이상 화간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슈? 가해자가 술에 취했던 안취했던 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쪽이 술에 취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 어부는 불투명하다고 떠드는 애나 좀 조용히 시키시지 그라?

물론 성폭력 가해자라도 법정이나 경찰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 안 되며, 조사 과정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또 TV에 나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는 게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화제의 중심으로 끌어오면서 자신을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가림으로써 피해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우리의 현실은 가해자의 인권이 어쩌구저쩌구...라는 얘기를 하기에 적당치 않다. 정작 보호받고 지켜져야 할 피해자 인권이 엄청난 침해를 당하고 있어 '허허, 도대체 피해자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다는 거지?' 라는 자조마저 나오는 척박한 상황인 것이다.

이봐요 가해자씨들, 정말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면 TV에 뛰어나와 "요즘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는데요...그래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같은 소리 할 시간에 가해자 교육이나 받으시지요. 그리고 웬만하면 교육 받을 때 친하게 지내시는 PD나 기자들 좀 같이 데려가시길. 언론에 의한 2차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분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육이 아니라 '훈' 이라면 더 좋을텐데. 끝글. **김소영**

by_ 늘 좀더 본분해지길 바래요. 음도, 마음도 3



여성학서평

삶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결혼을 하고서부터 계속 아빠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것이다.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살아계시는 내내 시름시름 일으켰지만, 내 기억 속의 할머니는 언제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올해 3월에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90세를 사시는 동안 내내 매우 건강하셨지만 내게 남아있는 기억은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 사람이 나이가 들고 기운이 쇠약해져 죽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했던, 그 모습이다. 아니 그것은 할아버지가 나이를 더해가는 동안 같은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마주해야했던 죽음의 모습이 었다. 그 모습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은폐시키려 얼마나 갖은 노력을 다 했던가.

사람은 누구나 시간을 자신의 삶에 돌리고 살아간다. 그 빠르거나 의미가 어떠하든, 누구나 살아낸다면 그들의 삶에는 이미 시간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대개는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때로는 결정적인 시간에 의해, 때로는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상을 통해 문득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될 때가 있다. 내가 처음 겪은 그러한 계기는, 아마도 할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아야했던 두 달여의 시간이었었던 것 같다. 사람마다 모두 다른 빠르기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나와 전혀 다른 타인의 속도를, 게다가 멈추기 위해 빠르게 점점 늦추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두 달여의 시간 덕에 내가 나와 타인의 시간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도 같다.

- 우에노 치즈코, 나카무라 유지로 「인간을 넘어서」

시간에 대해 생각하기

아직 저에게 늙음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면서도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이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느끼기'를 계속 거부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제 속에 있는 '늙음'에 대해 말하기 어려움과 계속 싸우는 것 - 그리고 그 이유를 계속 묻는 것 - 이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저의 과제로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물음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시간'이 무엇인지를 물어야하기 때문이지요.

- 우에노 치즈코의 편지 중에서



우에노 치즈코, 나카무라 유지로 지음
당대 펴냄

우에노 치즈코씨의 이름을 보고 무심코 집어든 '인간을 넘어서'에도, 삶의 시간에 대한 우에노 치즈코씨와 나카무라 유지로씨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 글을 쓰던 당시 우에노 치즈코씨는 40세에 막 들어서던 참이었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십진법의 시간에 익숙한 그녀에게 40세라는 시간의 매듭은 그녀 안에 들어앉아 있는 시간과 그녀가 도달하게 될 시간을 먼저 살고 있는 (노년의)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관심과 시선을 가져다준 지점이었다고 한다. 반면 나카무라 유지로씨는, 당시 환갑을 맞이했고, 그렇게 자신의 나이가 '미묘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늙음의 문제에 거리를 두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렇게 나이와 성별, 그리고 삶의 여러 조건들이 다른 두 사람은 시간, 늙음과 죽음, 여성과 남성 등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들을 풀어 놓는다. 그리고 '왕복 편지 교환'이라는 형식은 편지를 쓰던 당시 그들의 '지금, 여기'에서 부딪히고 있었을 삶의 고민들이 글에 자연스럽게 배일 수 있게 한다.

가족 바깥에서 늙음을 상상하기

'가족의 자연성'이라는 제도는 어쩌나 강력한지 여기서 소외된 사람에게는 그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착륙'의 방법은 없는 걸까요. 시행착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중략)

어떤 신화에도, 이데올로기에도 친친 감겨 얽매이지 않고 타인과 조출하지만 확실한 연계를 만들어나가는 것, 그 '부자연한' 관계에 희망을 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혹은 그렇지 못할지, 제가 늘 '불안해' 하고 '겁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우에노 치즈코씨의 편지 중에서

『우에노 치즈코는 「내셔널리뷰」라는 책으로 이미 유명한 일본의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자이다. 나카무라 유지로씨는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라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당연하게도, 나는 우에도 치즈코씨의 이야기에 더 많은 공감과 애착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비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녀가 가족의 바깥에서 느끼는 늠름에 대한 불안, 혹은 두려움, 하지만 그래서 그녀가 상상해낼 수 있는 '노라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비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혼자 살기, 혹은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나에게 그녀의 이야기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은 또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나의 부모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다. 이미 '가족'이라는 관계로 이어져있는 엄마와 아빠의 늠름에 대해 가족 바깥에서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아주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쉽지 않은 문제이다. 엄마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가족 누군가의 늠름에 대한 돌봄 노동을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나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관계 안에서 또 다른 여성에게 그 일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하면 나와 모든 여성을 사회와 가족의 이름으로 돌봄의 노동에 가두는 상황을 더욱 공고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가족'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관계이지만 가족과(가부장적 가치를 담지한) 사회의 굴레를 넘어, 누구도 일방적으로 돌봄의 노동에 가두어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늠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래서 사소해도 끊임없는 실험과 시도가 필요한 문제이다.

우연하게 마주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어가는 과정을 마주함으로써 나는 운이 좋게도, 나 자신과 타인의 시간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일상에 일종의 '멈춤'으로써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타인의 시간에 대한 나의 관심과 이해의 폭 또한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성급함과 이기심으로 여전히 좁은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나 자신의 시간과 속도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일만도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의 시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른 시간과 속도를 가진 타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덜 함부로 재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에도 치즈코씨의 말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능력 외에도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꿈꾸는 능력 또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질리지 않고' 말이다." **by_ 생생**

2) '노라의 방주'는 그녀 주위의 일로, 혹은 일러스트 등 자신이 있는 여성들이 일종의 '살아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대의 문화를 공유하여 함께 읽고자 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다.

by_ 생생 그래도 다시 재미있게 살아보자!

제8회 여성제

라퐁젤, 성을 탈출하다

: 일상을 뒤집는 여성의 주체적인 삶 살기

9월 13일(화) 여성, 섹슈얼리티의 주체가 되다

〈개막제〉라퐁젤, 더 이상 참지 않다 12시 중도 앞 광장
〈영화상영〉CQ2 (Seek You Too) 7시 상대 각당현
〈전시〉성을 탈출한 라퐁젤은 어디로 갔을까
13~15일 3일간 오전 11시 ~ 오후 5시 학생회관 3층 푸른샘

05. 09.13(화) - 09.15(목)

9월 14일(수) 여성, 일할 권리를 말하다

이주여성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카페 오전 11시 ~ 오후 5시 학생회관 3층 푸른샘
〈영화상영〉행과 장미 7시 학관 앞 야외상영 (무천시, 상대 각당현)

9월 15일(목) 주체적인 삶을 위한 힘주고 받기

라퐁젤, 파티를 열다 5시 반, 논지당
참가신청 : 9월 8일까지 tenergyup@yonsei.ac.kr